



농협 순창군지부, 쌀 소비 확대 캠페인 실시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는 최근 재고 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협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쌀 소비 확대 캠페인'을 19일 실시했다.

쌀 소비 확대 캠페인은 300만원 상당의 1kg 소포장 쌀, 순창 쌀로 만든 떡, 쌀 튀밥 등을 순창군을 비롯한 관내 주요 기관과 군민들에게 전달하며 '하루 두끼 밥심으로' 운동 전개로 우리 순창 쌀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김현수 지부장은 "쌀 값 하락에 따라 올 수확기를 맞이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순창농협과 농가를 살리기 위한 쌀 소비 촉진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농협 임직원은 '범농협 쌀 소비촉진 1·2·3 운동'을 전개하며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비전대, 전주공고 학생에 전공기술 재능 나눔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8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재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전공기술 재능 나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학 신재생에너지과 재학생들과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 전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 전공직무 기술을 공유했다.

김순정 평생교육원 원장은 "좋은 취지를 살려 앞으로도 지역사회연계 전공직무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농협, 어르신 복달음 나눔 행사 가져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4일, 초복을 맞아 시내의 한 식당에서 어르신 60여명을 모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복달음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복죽에는 초복을 보낸 어르신들은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김밥등을 대접하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라고 격려도 해주니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살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얼음생수 나눔 캠페인

남원시 자율방재단(단장 노시철)은 지난 14일부터 8월까지 '얼음생수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자율방재단원 30여명은 공설시장, 십수정 남원인파 인근에서 얼음생수 2,000여개와 폭염피해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폭염피해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상인과 시민들도 "매년 여름마다 얼음생수를 나눠주니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고 온열병을 예방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노시철 단장은 "7년째 이어지는 얼음생수 나눔으로 시민들이 점동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농업인 방방곡곡 온기나눔'

전북농협·남산농협, 반찬으로 정 나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9일 남산농협(조합장 김학립)에서 농협인식지부(지부장 이상우), 농가주부모임(회장 황규선)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방방곡곡 온기나눔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전라북도 여성분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움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한 한끼 나눔'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황규선 회장은 "비슷한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 명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십시일반 성금도 모으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기부함으로써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회원들이 땀 흘리며 정성껏 만든 열무김치와 돼지주물럭 등 밑반찬은 관내 120여 명의 독거노인과 고령 조합원에게 전달됐다."

김학립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전북농협은 쌀 산업기반 유지와 농업소득 지지를 위한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 등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전주청년경제인협회, 동서학동에 '사랑의 아이스크림 성금'

전주청년경제인협회(회장 신재업)에서는 19일 동서학동주민센터(동장 서성곤)를 방문해 사랑의 아이스크림 나눔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관내 주민자치위원이자 전주시청년경제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준호 씨가 아이스크림 무료나눔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회원들이 기탁하는 후원을 약속하며 이루어졌다.

동서학동 '사랑의 아이스크림'은 7월부터 8월까지 무더위 쉼터인 주민센터 안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비치해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10여 개의 자생단체들이 후원하는 행사다.

전주청년경제인협회 신재업 회장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함께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청년경제인협회는 전주지역의 100여 명의 청년 경제인들이 모여 협업과 상생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노블리소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하며 꽃발장이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윤성 기자

농협남원시지부·지리산농협, 아영면 돌봄대상자 지원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와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은 아영면에 거주하는 관내 돌봄대상자 어르신들을 찾아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취약농업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돌봄대상자 어르신들이농업인행복콜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달려간 NH농협현장봉사단은 실사를 거쳐 어르신들의 고통을 해결해드렸다.

권오정 지부장은 "충혼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의 고령·취약 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말벗 등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등록은 인근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어르신 폭염 안전교육 삼계탕 대접

남원시 동충동(동장 김은영)은 지난 14과 15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복달임 행사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폭염대비 건강 수칙과 응급상황처리 요령, 골절사고 예방법 및 대처법, 교통사고 예방법 등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한 후 복달임 행사로 관내 착한 가게에서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은영 동충동장은 "폭염 속에서도 동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삼천3동 소울어린이집 원생들, 성금·성품 기부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에 위치한 전주소울어린이집(원장 최희정)은 19일 삼천3동 주민센터를 방문,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0만 원과 마스크 4,8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소울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인 '하나 바다 시장놀이'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은 수익금 전액이다.

최희정 원장은 "어린이집 시장놀이 성금 기부로 우리 원생들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과 기부를 배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대, 전국 드론 축구 대학리그 2·3위 수상

전주대학교 드론 동아리 A팀과 B팀 등 2개팀이 최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2022 국토교통부장관배 전국 드론 축구대회 챔피언십 초대 대학리그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드론·UAM과 함께 여는 역동적인 미래 라는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서울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열렸다. 4개 리그(1부 2부, 3부, 대학리그) 100여 개 팀 1,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중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 4개국 선수단도 함께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드론 School 드론 융합 전공 및 드론 축구동아리팀을 운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인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대 LINC3.0사업단 주승 단장은 "대학 드론 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배의 대학리그 신설을 환영하며, 전주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축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스마트 인재 개발 교육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인재 개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호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활용한 '즐거로운 소통 생활 MBTI 원데이 클래스'를 주제로 실시됐다.

MBTI 성격 검사 이해와 피드백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 그룹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익히는 등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즉석에서 분석하면서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동료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박병춘 총장은 "MBTI 검사로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고 성향에 맞는 소통 방법을 활용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서부지역발전협의회, 효자5동에 삼계탕 300인분 후원

서부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황규표)는 19일 월례회의를 열고 효자5동 주민센터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300인분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삼계탕은 효자5동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효자5동 관내 시설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됐다.

서부지역발전협의회 황규표 회장은 "무더위로 지치지 쉬운 저소득계층을 위해 삼계탕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부지역발전협의회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8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서부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발전 현안 및 과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친목 모임으로, 효자5동에서 △어르신 삼계탕봉사 △김장 나눔 봉사 △지역아동센터 후원 △백미기원 등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및 주민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